

제 191 호

연중 제 16 주일

1976. 7. 18.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서서노총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다

박창신 신부

19세기 후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류는 이 세상안에서 이루어질 번영에 정신을 온통 팔리게 되었고 또 분주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지상의 번영과 인간이 누릴 행복에 대한 소망도 커졌다. 하지만 큰 소망에 비해 인류는 더욱 더 비인간화 되어 가는 비참한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각자의 고뇌와 죄-특히 죽음 앞에선 인간은 최후의 종말에서 헤어날길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착잡한 시대에 오늘의 복음말씀인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우리에게 착한 목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의 상황과 비슷하게 구약에 유목민이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항상 상기하며 역사를 주관한 하느님을 체험한다. 그 체험중에서 "야훼 하느님은 목자"라는 노래이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시 23편)를 노래하며 야훼는 목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양떼임을 의식했다. 목자이신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얻었다.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가 귀찮할 때 그는 주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게 되지 않도록 목자 같은 지도자를 주십사 하고 하느님께 간청했다(민수기 27장 17절) 그때에 주신 지도자가 요수아였다.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대부분 목자 없는 상태였다(에제키엘 34장). 그리하여 에제키엘의 예언을 통해 하느님은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목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에제키엘 34장 23절). 메시아 목자는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과 같은 군중을 측은히 여기시며 온정을 흠뻑 쏟으셨다. 그는 요한복음을 통해 자기계시를 해준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요한 10장 11절, 14절) 예수님은 삼군과는 달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착한 목자이다. 또 자기의 양들을 측은히 보시고 당신의 양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분은 착한 목자이다.

히브리말에 안다는것은 이론적인 앎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아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이다. 길 잃은 양을 보시기만 함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요한 10장 14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자체이다. 착한 목자 앞에 있는 우리 양의 무리는 그 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평화와 죄의 사함을 누리고 또 누릴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사자인가?... 그런데 이 세상의 삼군에 매달려 분주히 보낸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 아닐까?

나는 이 세상의 삼군 목자에게 몸과 마음을 쏟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반성해 보자.

-<순창 전주교회 주임신부>

❖ **시대의 징표** ❖



전전한 가족계획

-주교단 사목교서

인구폭발, 정말로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함수관계를 가지고 등장하는 골치아픈 문제들이 또 있다. 자원의 고갈, 식량의 궁핍, 환경의 오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아들딸 구별 말고 들만 낳아 잘 기르자"고 목원 소리를 지른다. 갓난 아기에 방주사를 맞치려 간 엄마에게 불임수술을 해야 주사를 놔주겠다고 치사스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문제다. 정말로 문제다.

천주교 신자들까지도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교회와 멀어지기조차 한다. 양심이 보케니 안그렇겠는가? 그래서 한국 주교단은 지난 6월 25일 6,0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사목교서를 다시 발표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바로 생명에 대한 인권입니다.

-모체 안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영혼과 육신으로 인명을 지닌 개별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무서운 살인죄입니다.

-루프를 사용하는 것은 피임방법이 아니라 잉태된 태아를 자궁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살인행위입니다.

-콘돔을 쓰는 것과, 질 외에 사정하는 것은 부부행위 그 자체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불임수술이나 불임약은 부부행위의 자연적인 결과를 미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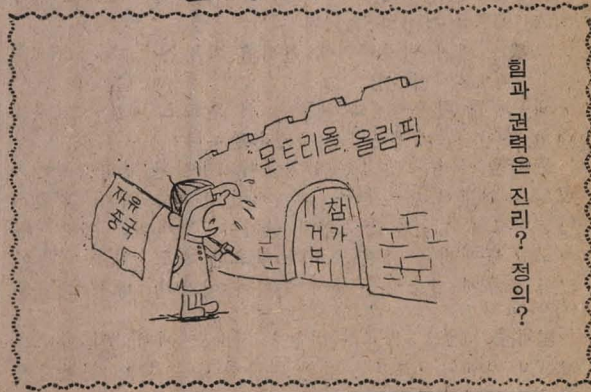
-가르막이나 다른 여러가지 인공적인 방법은 성행위의 결과를 비자연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협조해서 배란법(점액 관찰법)으로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가족계획을 하십시오.

-가정생활의 전체를 성화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幸福한 家庭 運動 전주교구 위원회

숲정이 산책



힘과 권력은 진리? 정의?



3.1 사건 공판 방청기 (8)

문 규 현 신부

진리는 드러나 밝혀지고 만다.

그러기에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위하여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여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제한된 방청이기에 우리 진리의 투사들을 대신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진술을 부족한대로 요약해 본다.

서남동(목사, 前 연세대 교수) : ■ 퇴직 이유는?

문교부 장관도 교수 임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대답한다기에 당시 총장서리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사표 내었으며, 대학당국도 문교부 당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정권에의 회생이다.

■ 선언문에 서명한 경위, 동기는?

민주회복에 관한것인줄 알고 서명 승락했으며, 민주회복은 나의 生死이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이를 못하게 한다. 해도 삼엄한 경계하에서 해야 되며 목사로써 설교도 하기 힘든 제약된 상황에 내 삶이 직시당하는 이때 민주회복은 나의 生死다.

동시에 민족의 生死에 관한 중요 문제다. 인지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권 내지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기에 망국의 한을 갖게 되었다. 현정권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북괴의 침입을 받는다면..... 그러므로 민주회복은 민족의 生死에 관한 중요문제기에 서명 동의 한 것이다.

■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권에 불만 있다.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와 경쟁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민권쟁취는 정권쟁취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권 연장에서 보기 때문일 것이다.

■ 구국선언문은 민중 봉기를 기대했나?

없었다. 성명서에 12사람이 서명했는데 그중 김대중씨만이 가톨릭이고 대부분 신교인이다. 명동성당에서 낭독한 것이 문제인데 민중봉기를 원한다면 왜 천주교회에서 하겠는가? 성당안의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이며 민중봉기 여건은 지배집단의 조성이지 한두사람이 할 수 없다.

■ 선언문 전체 흐름은?

민주회복에 있고, 정부에 대한 충고도 있지만, 민중에 대한 호소지 정부에 대한 진정서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회복 요구며 정당한 요구다.

■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사상은?

예언자의 활동사상과 예수의 첫 설교도 해방당 인권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사상은 인권존중이다.

윤반응(목사) : 답답한 방청이다. 제한된 방청이지만, 방청을 허락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다. 피고의 진술을 명료하게 들어야 할텐데, 이분처럼 연로한 분에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데도 아무 대책이 없어 도무지 말소리를 알아 듣기가 어려워 방청기를 쓸 수가 없다.

함세웅(신부) :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예배만이 아니라 친인적 자유다. 교회는 인간 자유를 옹호하고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복음정신과 너무 거

리가 멀기 때문에 벌어지고 억눌린 사람위해 입을 열라는 잠언의 말에 따라 모여서 기도한 것이다.

■ 공소장의 기소는 종교인 현실 참여에 대한 비난인데, 정치에 종교가 개입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나, 신부님은?

① 정치 공동체와 교회 대상은 인간이다. 다만 제도의 차이는 인간에게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을 목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별이 아니다. 교회는 복음정신에 관계되는 것에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명이 있다.

② 구원은 전 우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다. 곧 정치윤리 사회에 구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위배되는 것 없애는 구원이 교회의 사명이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판사의 제지로 하지 못하였다.

■ 유신체제 당위성에 대해서는?

솔제니친은 부당한 정치권력은 허위를 구상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복력을 남무하는 것이 수단이다. 국민에게 참다운 자유주고, 자유에 기초를 두어 국민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종교와 양심의 자유, 억압되었다고 보는가?

종교자유 압살은 기도회때마다 체험한다. 기도회때마다 질책을 차단되고 정부부에 의해 포진된다. 이보다 더 큰 탄압이 어디 있느냐?

정권쟁취에 대한 조건에 대해 묻는 변호인의 함신부님에 대한 반대신문은 제지되었다. 여기서 변호사와 재판장의 옥신각신이 있었다.

문정현(신부) :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있는 한은 성직자 민주인사가 구속되고 투옥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사람의 자유를 인정한다는데에 민주주의를 좋아한다. 나는 유신체제라도, 정말로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위해 헌신한다면, 더 악법이라도 순종하겠다. 현실이 나쁜 것은 유신헌법의 목적과 내용과 그 절차 목적 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유신헌법은 진리에 위배되며, 한 지배자 긴급명령으로 해졌기에 인간의 양심을 짓밟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체제는 완전할 수 없다.

긴급조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낮은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법을 발견하고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 이 양심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명령한다. 이를 따르는데 인간은 존엄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특히 공무원 이야기에 기막히게 슬픔을 느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다. 목구멍을 명으로 양심을 짓밟아 버린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따르며 자유로이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자유다. 맹목적이 아니고 강압이 아닌, 내적 동기와 행위에 의하여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이야기만 하여도 감옥행이다.

■ 신부님의 활동이 반정부적이었는가?

할일이 그렇게도 없어서 반정부운동 하겠느냐? 인권회복의 목적 때문이다.

■ 공소사실은 김지하 시인 양심선언 경과 보고인데... 여기까지 앉아있다 보니 오후 5시30분. 타야할 버스 시간은 5시40분이다. 불야 불야 서울역에 나와 전주에 와야 했다. 비극이다. 언젠가도 한번 순정이를 불타여 밟혔지만 꼭 토요일날 그것도 늦게까지 해야만 할 이유는 무엇이든가?

어떻든 끝까지 참석하여 진리의 투사들의 추심한 대변인이 못되어 쓸쓸하며 죄송한 마음이다. 다음부터는 단사를 제쳐놓고 해야겠다는 심정이다.

<전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사도행전

한 기 호

저자 : 초대 교회의 전승은 (2세기 말 까지) 루가 복음사가가 루가 복음을 저술하고, 두번째 저서로서 사도행전을 전해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리옹의 성 이레네오). 사도행전의 서문은 사도행전이 루가복음의 속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루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볼 때 두작품 양자간 단어, 문체, 어휘, 신학적 사상등 공통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도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루가의 동일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명칭과 내용 : 이책의 내용은 사도행전 명칭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2사도의 역사가 아닌 주로 베드로 바울로 행적에 관한 기사이기에 둘째, 이 책에서 발견되는 것은 모든 사도들의 활동이 아니고 성신의 활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 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목적이나 문학 형태로 볼때 복음서와는 다른 것이지만 여전히 복음이다.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권의 책이 한 저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 제4 복음서(요한)의 삽입으로 나뉘어 졌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최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부터 주위 세계로 퍼져 나간 성신의 강력한 활동을 보이는데 있다. (사도행전 1; 8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함) 사도행전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고 성신의 그노르심(충동)하에 교회의 성장에 관한 기록이다. (9; 31)

연대 : 사도행전이 루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볼 때 기원후 80년을 전후로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80~90년 사이로 보는 학자도 있다.

장소 : 성 이레네오 교부를 위시한 초대 교회의 오래된 전승은 바울로 사도의 순교 후 (67~68) 회람의 아카이아 지방에서 저술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신학적 특징 : 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의 세계화 과정을 보여 줌으로서 복음의 보편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AD 30-36 : 사도들의 교회 발전 보여줌. AD 36-39 : 디아스포라 <유대인 본국 밖에 산재하고 있는 유대교도들의 모임>에서의 그리스도교 발전을 보여 줌. AD 49-60 : 바오로의 활동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세계화를 보여 줌). ② 예수 승천과 (1; 9-14) 성신강림 (2; 1-36)의 묘사로서 교회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③ 12사도중 한 사람이 아닌 바울로를 베드로와 더불어 중요한 사도로 부각시켜, 오늘날까지도 서방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로를 교회의 두 기둥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④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서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제림의 일박성이 더욱 완화, 실제로는 교회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副祭)

요심이 (155)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0 1 3
김원준(야고백)

여자보세공 모집

1. 자격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②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딩)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활인 우대★

후 · 칼라 · 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⑤ 5 2 8 9
김금순 (메레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압 (보이세)

금압동 ⑤5614	군산 3032
다가동 ⑤4342	부안 736
전 동 ⑤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⑤ 1665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 남자 ○명
2. 응모자격 : 고졸이상 3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된자
3.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
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소명합판 사진, 병적증명서 각
1통. (부기, 주산 자격증 소지
자는 사본 1통.)
4. 접수기간 : 1976년 7월 27일
오후 5시까지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 28일 오후 1시
본 조합 사무실.
6. 접수처 :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 내
본조합 사무실 전화 ③ 3185.

전주 임원 신용협동조합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사항 *

1. 전주교구 중·고등 학생회 하기 수련대회 (8월2-5일, 진안 필포, 경비는 본당 자체 부담) 신앙강좌 및 그늘대화, 참회예전, 공동미사, 기도등을 통한 가톨릭 중·고등학생으로서의 신앙심 강화와 친목도모. (본당 신부님과 사도회 여러 어른들의 크신 후원을 바랍니다.)
2. 전주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하기 봉사활동 (8월15-21일) 봉사 활동 받기를 희망하는 공소나, 봉사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7월27일까지 교구연합회에 신청바랍니다.
3. 이별호 신부님 무사히 파리 도착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만사는 쉽게 풀려나갈듯 해서 우선은 안심입니다. 차츰 소식 전하기로 하고 우선 도착 인사 드립니다. 주소: Pere Vincent B.H.Ri/Missions étrangères/128, rue du Bac/75341 Paris CEDEX on/France
4. 서해방송 (25일<다음주일>) 오전 7시40-50분, 유장훈 신부)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7월19일 <월> 오후8시,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수석보좌 신부 함길
제2보좌 신부 김이
사도회장 이상용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회장 조성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유아 세례식: 23일(금) 어머니 미사후
3. 전례 분과 위원회: 24일(토) 저녁 8시반
4.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5시 <강당>
5. 각 구역장 모임: 각 구역장실에서 (저녁 8시)
20일(화)-금암동, 인후동, 21일(수)-중노충동, 경원동, 22일(목)-고사동, 서신동, 23일(금)-태평동 1가, 2가
* 신부님, 수녀님, 사도회 임원님의 전원 참석 바랍니다.
6.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 26일(월)~31일(토)
7. 성심 부녀회 하기 피정: 26일(월)~27일(화)
8. 애령회 회자금: 김후영 상가 10,000원 ◎감사합니다

1. 반 회합 금주에 없습니다.
2. 김메레사 할머니 13일 12시 선종
◎ 많은 기도와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회장 박장준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회장 조해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3. 본당 성미 운동에 협조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4. 본당의 십자처 지난 금요일 10시 미사후 축성-공이 크신 노 마리아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유아 세례식: 21일(수) 오후 3시
◎ 19일(월)까지 접수 바랍니다.
2. 반 재조정 및 반상회 일정: 1반-구1,2반<매월 첫주 화요일>, 2반-구3,4반<매월 첫주 수요일>, 3반-구5,7반<매월 첫주 목요일>, 4반-구7,8반<매월 첫주 금요일>, 5반-구6반<매월 둘째주 화요일>, 6반-구9,17반<매월 둘째주 수요일>, 7반-구10반<매월 둘째주 목요일>, 8반-구11반<매월 둘째주 금요일>, 9반-구12반<매월 셋째주 화요일>, 10반-구16반<매월 셋째주 수요일>, 11반-구15반<매월 셋째주 목요일>, 12반-구13반 일부<매월 셋째주 금요일>, 13반-구13반 일부<매월 넷째주 화요일>, 14반-구18반,15반-기타반 ※ 시간-밤 8시반
3. 신용 협동 조합 이사회: 10시 미사후 ◎ 조합원은 18일까지 통장, 인장, 주민등록증을 지참 조합에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회장 김용환

1. 학생과 청년 하계 수련 등반: ① 일시-8월2일~5일
◎ 장소-지리산, 뱀사골, 노고단, 화엄사.
◎ 회비-1,200원 ④준비를-배낭, 바나나, 코펠 등...
2. 하계 어린이 특별교리, 첫 영성체: 8월 9일~14일 오전 9시~12시까지
3. 어머니 수련회: 8월16일~18일<신유도>
4. 학생과 청년 하계 특별 성경 연구: 7월 28일~31일 오후 9시~12시까지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문규모
사도회장 양윤모

1. 꼬미씨움: 오늘 오후 1시 30분
2. 예비자 교리: <일> 10시 미사후-장수녀, <수> 저녁 미사후-보좌신부, <금> 저녁 미사후-주임신부 <일> 9시 미사후: 학생-이 수녀
3. 교무금 등려반 <7월말까지 목표 초과 달성>
동원산동: 재정부장, 서원산동-부회장, 교동-보좌신부, 전동-선교부장, 노송동-장수녀, 중앙, 경원-다가-봉사부장, 풍남동-주임신부, 기타 등-사무장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김수신태인음	학생회 월례회	26,290원	제3지구	주현동	방지거 삼회	56,030원
		청년 연합회 임시총회				제3지구	주현동
제2지구	대문울월명중합	성모회	23,850원	제4지구	중노충동	청년회 간부 회합	9,450원
		사도회 확대회의				7,020원	제5·6지구
제3지구	고금여삼	어른 공소 미사	58,835원	제4지구	부자동	애령회 간부 월례회	
		전례 위원회, 성모회	29,590원			제4지구	전동
제3지구	고금여삼	구역장회	21,445원	제4지구	전동		
		제10차 청년 연수회	17,850원			제4지구	전동
제3지구	고금여삼	어린이 보레 및 세례	3,065원	제4지구	전동		
		성우회 월례회	13,600원			제4지구	전동
제3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15,725원	제4지구	전동		
		사도회 월례회	15,725원			제4지구	전동
제3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15,725원	제4지구	전동		
		사도회 월례회	15,725원			제4지구	전동
제3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15,725원	제4지구	전동		
		사도회 월례회	15,725원			제4지구	전동